

제331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폐회중)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3월18일(수)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2. 간사 선임의 건	1
○ 위원장(이병석) 인사	2
○ 간사(정문현·김태년) 인사	2

(보고)

(09시05분)

○**입법조사관 김병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위원을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7일부터 정치개혁특위 위원 선임 통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속 위원님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첫 회의에 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국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위원님 중 최연장이신 유인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유인태 위원님께서서는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09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 사회를 맡게 된 유인태 위원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09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 절차는 국회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 관례에 따라 구두로 위원장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로부터 구두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이병석 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태** 김태년 위원으로부터 이병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김태년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병석 위원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이병석 위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이병석) 인사**

(09시09분)

○**위원장 이병석** 유인태 위원님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 및 정치 개혁 의제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주요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으로서, 특히 지난해 10월 3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향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및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가능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숙의하고, 이견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을 협의해 주실 양당 간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고,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 관례가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추천해 주신 정문헌 위원님과 김태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간사(정문헌·김태년) 인사**

(09시13분)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간사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정치개혁특위 야당 측 간사로 선임된 김태년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강하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야당 측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관찮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정당은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해야 될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정개특위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간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문헌 간사 위원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정문헌 위원입니다.

정개특위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이번 정개특위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야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선거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야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잘 모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민심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정문헌 간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임되신 위원님들 간의 상견례 차원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순서는 새누리당 정문헌 위원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아까 간사 취임 인사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특히 야당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여야 간에 지혜를 맞대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경대수 위원님께서……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을 모시고 특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명연……

○김명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과 소속 위원님들 잘 모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다음 김상훈……

○김상훈 위원 대구 서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다른 어떤 특위보다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쟁점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 시각보다는 국민들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장님과 고명하신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다음에 김희선 위원님께서……

○김희선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김희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을 포함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정치개혁특위라는 아주 막중한 위원회의 일원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또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 개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민현주 위원님.

○민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현주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름에 걸맞은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박민식 위원님.

○박민식 위원 박민식 위원입니다.

제가 정치 경험은 몇 년 안 되지만 대한민국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그동안 '오욕의 역사였다', 진흙탕 싸움이었지요. 선거에 임박해서 그야말로 허겁지겁 여야가 서로 주고받

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특별위원회’, 정치 발전 위원회가 아니라 ‘정치 발전 저지 위원회’로 전락했다 이런 혹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시대적인 문제의식, 소명감, 책임감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각오로 견마지로를 다해서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다음에는 여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여상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일체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좀 관철시켜 볼까 해서 정개특위 위원 임명을 수락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역시 말이지요, 이 독립기구의 선거구 획정안에 위헌·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저는 4년 전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헌, 합법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의 야합에 의해서 합헌적인 헌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합헌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키는 그런 위헌·위법 현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온몸을 던져서 이를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런 점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에 제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그때 제가 이런 정개특위의 위헌·위법 행위에 분노하는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저는 당시 정개특위의 위헌·위법 야합 행위에 항의한 것이지 제가 어떤 선거구 획정에 관여를 한다든지 제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오해하지 않도록 자료화면 보도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식 위원 신상발언이에요, 신상발언.

○여상규 위원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태년 간사 위원님을 비롯해서 차례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저는 아까 인사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김상희 위원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이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아주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선 의원으로 지금 이제 7년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보다도 가장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비교해서 정치가 가장 지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개개인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관계법들이 어떻게 보면 2003년, 2004년 16대 정개특위에서 대대적인 손질이 이루어져서 정치가 좀 투명해지고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의, 특히 국회의 대표성의 문제라든가 지역 구도의 문제라든가 공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대 정치개혁특위 그 이후에 요번 지금 19대,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이 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정말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개특위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또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여야 정치권의 정말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을 또 이끌어내는 데 우리 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 위원회 활동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정말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매몰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가, 의회가 대표성이 제고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그런 정치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각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 안녕하세요. 전주 완산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이 다루어질 텐데요. 정말 항상 우리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나주·화순 지역의 신정훈 위원입니다.

국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정치개혁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정말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또 이 활동에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고맙습니다.

유인태 위원님께서……

○유인태 위원 유인태입니다.

김상희 위원의 기초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잘해 봅시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정의당의 심상정입니다.

원내 제3당의 유일한 위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행인 것은 평소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과 정문헌, 김태년 두 분 간사님을 모시고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개특위에는 지금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이 올라와 있지만 핵심은 역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정개특위 위원을 선정하면서 좀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관위나 또 제3기구에 맡기자는 게 공통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에서는 이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면 합니다.

지금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만들어 내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 이제 역사적 시효를 끝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또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는 선거법을 만드는 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또 양당 간사님을 선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그리고 양당 간사 위원님과 위원님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방금 인사말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대적 소임을 정말 잘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당 간사님 좀 나오셔서 저하고 그 의미를 다지는 간단한 다짐을 좀 하겠습니다. 언론계의 기자님들의 요청이니까 그 의미도 받아들입니다.

자, 이리 오십시오.

(사진 촬영)

○김태년 위원 기왕이면 위원님들 다 나오셔서 하면 안 되냐? 위원님들 다 나오셔서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병석 다 좀 나오시렵니까? 언론인들의 요청인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나머지 직원분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마는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위원님.

○박민식 위원 향후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생해 주실 우리 특위 소속의 수석전문위원님, 입법조사관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유심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뜻 보니까 무슨 초안 같은 게 어디 있던데요, ‘향후 의사일정’ 해서. 보통 정개특위든 다른 특위 의사일정을 하면 여야 간사님들께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마는 통상은 보면 뭐 공청회 같은 것…… 아까도 언뜻 보니까 정당법 관련 공청회, 정치자금법 관련 공청회 또 공직선거법 관련 공청회…… 그렇게 해서 한 달다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위의 활동 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이지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빨리빨리 여기서 속도를 내서 결정을 해주어야 또 외부에 선거구 획정 기구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거기서 또 할 것이고 또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선거 준비를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절차도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압축적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 의사일정 협의하실 때 반드시 무겁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특위 활동 또는 일정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좋은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심상정 위원 8월까지는 아니라도 중기적인 일정 계획이라도 논의가 되신 바가 있는지…… 아

직 없습니까?

○김태년 위원 오늘 선임됐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병석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우리 박민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특위 운영했던 그런 방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공청회하고 또 질의하고 이런 운영과 더불어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 비공개로 아주 집중적인 토론, 정말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서 서로의 소통을,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진실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외부로 1박2일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저는 좋겠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당 지도부나 당론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각 당에서 설득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저 여느 특위 하듯이 정말 형식적으로 공청회 하고 돌아가면서 질의한 번 끝내고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운영 자체도 획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나중에 또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상견례를 겸한 정개특위가 돼서 더 할 말씀이 없으시면, 방금 우리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마지막 후반부에 당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저와 양당 간사 위원님과 함께 이 정개특위가 이전과는 다른 특위, 또 그러면서도 향후 대한민국

국 100년의 정치의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주춧돌을 놓았다 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압축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개특위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국민께 우리가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가운데 위원님들 의견을 특별히 경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이전에 해 왔던 관행적 정개특위 운영 일정을 뛰어넘어서, 밤을 셀 때 밤을 새고 그리고 매일 만날 때 만나고, 머리 맞닿 때 맞대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투명 정치, 진정한 정치 개혁의 출발을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 내는 큰 개가를 국민들께 선물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회의 일정은, 향후 특위 운영계획에 대해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과 협의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여러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경대수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희선 민현주
박민식 신정훈 심상정 여상규
유인태 이병석 정문헌

○출장 위원(1인)

박영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이창림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경대수 김명연 김상훈 김희선 민현주 박대동 박민식 여상규 이병석 정문헌	새누리당	2015. 3.17
김태년 김기식 김상희 김윤덕 박범계 박영선 백재현 신정훈 유인태	새정치 민주연합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